

# 金匱當歸散의 胎熱 豫防 가능성에 대한 小考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방정균\*

## 對於金匱當歸散之胎熱豫防可能性的小考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在『金匱要略』, 提示了金匱當歸散有養血清熱的效能, 所以治胎動不安證. 而在『東醫寶鑑』說明了本處方治半產, 並且說明了豫防胎熱與痘疹. 由于如此的說明, 可以推論金匱當歸散能豫防胎熱. 胎動不安與半產, 都是因孕婦陰虛而虛陽躁動而發病的. 胎熱是母體的熱傳于胎兒而發生的病症. 由于以上的內容, 可看到胎動不安·半產·胎熱, 都是因陰虛而虛陽躁動的病機所發. 所以把金匱當歸散, 用于胎動不安與半產的治療及豫防, 而且可以擴大應用於胎熱的豫防.

Key Words : 金匱當歸散, 胎熱, 陰虛, 虛熱

### I. 序論

자연계의 모든 만물은 정체가 되면 썩게 되어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시공간에 국한되고 정체가 되어 變用·應用될 수 없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經典이라고 불리우는 서적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金匱要略』은 한의학 經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서적이 經典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속에 담고 있는 醫論 및 處方이 현재에 까지 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상황에 맞춰 變用·應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論者は 그 一例를 『金匱要略』에 제시된 金匱當歸散에서 찾아보았다. 『金匱要略』의 원문에는 妊娠時에 常服을 하면 출산이 잘되고 胎兒에 苦疾이 없다는 정도의 간단한 기술만 있다. 이에 대해 후대 醫家들은 胎動不安과 半產의 치

료제로 그 내용을 확대시켰다. 이에 論者は 『東醫寶鑑』에 제시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金匱當歸散의 胎熱 豫防 가능성에 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并治第二十』에는 부인 妊娠에 當歸散을 常服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겸하여 當歸散을 제시하면서 그 효능을 밝히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婦人妊娠, 常服當歸散主之<sup>1)</sup>. (婦人의 妊娠에 當歸散을 常服한다.)

1) 金匱要略廣注에는 “宜常服當歸散主之”가 “宜常服當歸散”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宜常服當歸散”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金匱要略廣注의 내용을 따라 해석하였다. 여성원 외 5人. 金匱要略·婦人妊娠脈證并治第二十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p. 286.

\* 교신저자: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33) 730-0666, bjkdcw@sangji.ac.kr

當歸散方

當歸 一斤, 黃芩 一斤, 芍藥 一斤, 芎藭 一斤, 白朮 半斤

右五味, 杵爲散, 酒飲服方寸匕, 日再服. 妊娠常服, 卽易產, 胎無苦疾, 產後百病悉主之.(以上的 다섯 가지 약을 절구에 넣고 찌어 가루를 만들어 술로 사방 1촌 크기의 수저만큼 복용하되 하루에 2회 복용한다. 妊娠 중에 常服하면 출산이 잘 되고 胎兒에 苦疾이 없으며, 產後의 모든 병도 치료한다.)<sup>2)</sup>

以上的 金匱當歸散<sup>3)</sup>의 효능에 대해 후대 醫家들은 대부분 胎動不安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는 半產(流産을 뜻함)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 醫家들에게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胎兒의 聰明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는 등, 金匱當歸散에 대한 설명에 있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역대 醫家들의 본 조문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東醫寶鑑』의 내용을 통해 金匱當歸散의 胎熱 豫防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歷代 醫家들의 견해

1) 黃元御

黃元御는 임신이 되면 胎兒는 木氣에 의해 생겨나고 土氣에 의해 길러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신 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木과 土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土가 濕해지고 木이 燥해지는 것이 임신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燥하게 되면 鬱熱이 발생하여 土를 억제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는 土와 木을 培養하는 처방을 常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黃元御는 金匱當歸散이 이러한 病機에 적합한 처방으로 인식하면서 각 약물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白朮은 土濕을 말려주고, 當歸와 芍藥은 木이 燥한 것을 윤택하게 해주고, 芎藭과 黃芩은 清熱의 효능으로 瘀血을 운행시켜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이 상에서 黃元御는 임신 질환의 원인으로 木의 燥를 강조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木은 五藏 가운데 肝에 속한다. 肝은 血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체내에서 發生之氣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木이 燥하다는 것은 肝의 血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陰血이 부족하면 물질적 기초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陽의 작용이 부족하게 된다. 그 결과 氣血을 퍼뜨리는 氣의 작용이 부족하게 되어 체내에 濕이 積滯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濕이 積滯되면 鬱結되어 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脾土를 억제하여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黃元御는 임신 질환의 病機에 대해 이상과 같이 이해하면서 金匱當歸散의 효능을 燥濕·養血·清熱로 정리하고 있다.

2) 尤在涇

尤在涇은 임신을 한 후에는 濕熱로 인해 胎氣가 동요되는 것을 가장 염려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金匱當歸散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芎藭과 當歸 및 芍藥은 養血하는 약인데, 養血하는 약에 除濕하는 白朮과 除熱하는 黃芩을 가미하여 濕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黃芩과 芍藥이 安胎의 聖藥이라는 朱丹溪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黃芩과 芍藥으로 濕熱을 제거함으로써 저절로 安胎되는 것이지 黃芩과 芍藥이 직접적으로 安胎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sup>5)</sup>. 이상에서와 같이 尤在涇은 金匱當歸散을 安胎藥으로 인식하면서 濕熱을 주로 치료하는 것

2)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429.  
3) 후대에 當歸散이라는 처방이 있으나, 金匱要略의 當歸散과 차이가 있다. 이에 후대의 當歸散과 구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金匱當歸散이라 名稱한다.

4) 孫治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金匱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93. “胎之結也, 賴木氣以生之, 藉土氣以養之, 妊娠所以多病者, 土濕而木燥也. 燥則鬱熱而克土, 故妊娠所以宜常服者, 培養土木之劑也. 當歸散, 白朮燥土, 歸, 芍潤木, 芎藭, 黃芩, 清熱而行瘀, 土旺木榮, 妊娠無餘事矣.”  
5)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67. “妊娠之後, 最慮濕熱傷動胎氣, 故于芎, 歸, 芍藥養血之中, 用白朮除濕, 黃芩除熱, 丹溪稱黃芩, 白朮爲安胎之聖藥, 夫芩, 朮非能安胎者, 去其濕熱而胎自安耳.”

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임신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養血하는 藥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胎動不安의 원인을 濕熱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黃芩과 白朮이 安胎의 효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濕熱을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吳謙

吳謙은 임신의 胎動不安에 대해 濕熱이 원인이라는 尤在涇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sup>6)</sup>. 다만 常服의 의미에 대해서 병이 없는 경우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조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常服해야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니, 평소에 마른 사람이 熱이 있는 경우 血이 耗損되어 胎兒에 손상을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본 처방을 常服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吳謙은 본 조문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 속에 金匱當歸散의 適應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瘦而有熱”한 사람의 경우 金匱當歸散을 常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瘦人은 血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마르면서 熱이 있다는 것은 陰虛로 인해 발생한 熱, 즉 陰虛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면, 吳謙은 胎動不安의 원인을 陰虛로 인한 虛熱을 주원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결과 金匱當歸散의 효능을 陰虛로 인한 虛熱을 치료하는 것, 즉 滋陰과 清虛熱로 인식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吳謙의 사상을 추론할 경우 기존의 胎動不安의 원인을 濕熱로 인식한 것에서 진전된 논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陳修園

陳修園은 金匱當歸散의 복용법에 있어 吳謙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만, 徐忠可의 주장을 인용하여 각 약물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특히, 黃芩과 白朮에 있어 상세하게 설명하여, 朱丹溪가 설명한 黃芩과 白朮의 “安胎之聖藥”의 의미를 선명하게 밝혀내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白朮은 健脾土하는 효능이 있는데, 黃芩으로 도와주면 濕이 熱로 인해 滯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安胎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黃芩이 涼血利氣의 효능이 있어, 임신 기간 중의 燥熱로 인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본 처방의 君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8)</sup>.

5) 李克光

李克光是 金匱當歸散을 血虛有熱로 인해 발생하는 胎動不安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는 肝血不足과 脾虛로 인해 생성된 濕 때문에 血虛 濕熱의 상태가 되어 胎動不安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金匱當歸散의 調養肝脾·清其濕熱하는 효능을 통해 養胎安胎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常服”의 의미에 대해서는 吳謙과 陳修園의 견해를 받아들여 病이 없을 경우 常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특이한 것은 半產·漏下의 病歷이 있었던 경우 常服하여 保胎·安胎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半產과 漏下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金匱當歸散의 효능과 연계해볼 때 陰虛의 素因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李克光是 陰虛의 素因이 있는 임신부는 金匱當歸散을 常服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6) 『東醫寶鑑』

『東醫寶鑑』에서는 金匱當歸散을 養血清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습관적으로 流產을 하는

6) 吳謙이 諸家の 주장을 모은 集注에 본 조문의 경우 尤在涇의 注를 신고 있다.

7) 吳謙 等編. 御纂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 287. “妊娠無病不須服藥, 若其人瘦而有熱, 恐耗血傷胎, 宜常服此以安之.”

8)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金匱要略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 281. “婦人妊娠, 無病不須服藥, 若其人瘦而有熱, 恐熱氣耗血傷胎, 宜常服當歸散主之. 徐忠可云: 生物者, 土也. 而土之所以生物者, 濕也. 血爲濕化, 胎無賴之. 故以當歸養血; 芍藥斂陰; 肝主血, 而以川芎通肝氣, 脾統血, 而以白朮健脾土; 其用黃芩者, 安胎之法, 惟以涼血利氣爲主; 白朮佐之, 則濕無熱而不滯, 故白朮佐黃芩, 有安胎之能, 是立方之意, 以黃芩爲主也. 胎產之難, 皆由熱鬱而燥, 機關不利, 養血健脾, 君以黃芩, 自無燥熱之患, 故曰常服易產, 胎無苦疾, 并主產後百病也.”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1994). pp. 573-574.

경우 常服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이하게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胎毒이 없게 되고 痘疹의 발병이 줄어들며, 아울러 태어난 아이가 聰明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醫家들이 金匱當歸散을 胎動不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東醫寶鑑』에서는 半產(流產)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血氣가 虛損하여 胎兒를 榮養하지 못하는 경우 墮胎가 되는 것 이외에, 過勞하거나 성을 내어 감정을 상하게 되면 內火가 動하여 墮胎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金匱當歸散을 陰虛로 인해 虛熱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半產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이하게 金匱當歸散을 복용할 경우 胎毒과 痘疹이 줄어들고, 아이가 聰明해진다는 것은 養血과 清熱의 효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胎熱

胎熱은 胎中에 母體로부터 熱을 받아 태어난 것으로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嬰兒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다. 胎熱의 주요 증상은 痰多氣喘, 目閉眼赤眵泪, 遍身壯熱, 小便赤澀, 大便不通, 時復驚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증상 이외에 피부의 斑疹, 瘡癩, 紅赤腫脹 등의 증상이 수반되어 나타난다. 한편, 胎熱의 病因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부가 香燥辛熱한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한 경우이다. 둘째 溫補之劑를 과다 복용한 경우, 셋째 七情鬱滯로 化火한 경우, 넷째 外感邪氣가 入裏하여 熱化한 경우이다<sup>1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胎熱은 病因과 증상이 모두 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증상에 있어 斑疹, 瘡癩, 紅赤腫脹 등의 증상이 중요한데, 근래에는 頭部 또는 面部에 濕疹이 생겨 가려우면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를 胎熱의 주된 증상으로 보고 있다. 斑疹 등의 피부와 관련된 증상은 新生兒에 나타나는 胎熱뿐만 아니라 소아에게 자주 문제가 된다. 清代 太醫院에서 大方脈科, 小方脈科, 傷寒科, 痘疹科 등의 11科를 9科로 줄이면서 痘疹科를 小方脈科에 편입시켰던 것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한편, 胎熱과 胎毒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胎毒은 熱毒·風毒·濕毒·寒毒으로 세분되는데, 이 가운데 熱毒이 胎熱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胎熱은 食積·약물의 과다 복용·七情의 문제·外感 등에 의해 발생하는 데, 이들 病因은 모두 임신부 체내에 熱을 조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상의 病因으로 인해 임신부 체내에 熱이 발생할 경우 이 熱은 津液을 손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陰虛證을 유발하게 된다. 임신을 하게 되면 胎兒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임신부의 氣血이 부족해 질 수 있는데, 熱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陰虛의 상태를 더욱 조장하게 되면 체내의 熱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임신부 체내에 조성된 熱은 결국 胎兒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출생 후 胎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3. 金匱當歸散의 胎熱 豫防

金匱當歸散에 대해 대부분의 醫家들은 安胎藥으로 설명하면서, 養血清熱을 본 처방의 주된 효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마른 여성이 임신을 하여 熱이 있을 경우 血을 모손시켜 胎兒를 손상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처방이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마른 여성의 경우 평소 陰血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p. 609-610. “孕婦宜當服, 養血清熱, 素慣半產者, 宜服以清其源, 而無後患也. …… 婦人孕則碍脾運化, 遲而生濕, 濕而生熱. 古人用白朮·黃芩爲安胎之聖藥, 蓋白朮補脾燥濕, 黃芩清熱故也. 況妊娠賴血培養, 此方有當歸·川芎·芍藥以補血, 尤爲備也. 服此藥則易產, 所生男女兼無胎毒, 則痘疹亦稀, 無病易育, 而聰明智慧不假言矣. 累試果驗.” “墮胎, 乃血氣虛損, 不能榮養而自墮, 猶枝枯則果落, 藤萎則花墜. 有因勞怒傷情, 內火便動, 亦能墮胎.”

11) 牛風云. 談嬰兒胎熱胎毒的成因與證治. 遼寧中醫雜誌. 2004. 31(10). p. 848.

12) 김기욱 外 15人.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 296.

13) 劉翠玲. 胎毒學說的歷史淵源與現實意義. 中國醫藥學報. 1999. 14(1). pp. 59-60.

로 陰虛가 더욱 심해져 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金匱當歸散을 복용하여 부족한 陰을 滋養하고, 본 처방에 포함된 黃芩으로 陰虛로 야기된 熱을 내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처방은 肝이 藏하고 있는 血이 부족하여 相火가 妄動할 경우 知柏四物湯을 사용하는 朱丹溪의 처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한편, 본 처방을 동일하게 安胎藥으로 이해하면서, 半產·漏下의 病歷이 있었던 경우 본 처방을 常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半產의 조목에 본 처방을 삽입하여 半產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半產은 墮胎라고도 하는데 血氣가 不足하여 養胎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sup>15)</sup>. 즉, 半產은 陰虛로 인해 임신부 체내의 陰陽 균형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陽이 偏勝하여 躁動하게 된다. 그런데 陰이 부족하여 躁動한 陽을 잡아주지 못하면, 陽의 外越하려는 속성에 의해 半產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半產의 주된 病因은 陰虛라고 볼 수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金匱當歸散의 효능은 胎動不安과 半產을 치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2가지 병증은 모두 陰虛라는 공통된 病因을 가지고 있다. 즉, 陰虛로 인해 熱이 심해지면서 養胎를 하지 못하고, 또한 陰이 虛하여 陽을 潛藏시키지 못하여 虛熱이 躁動하게 되고, 그 결과 胎動不安과 半產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부의 陰虛로 인한 熱의 발생은 胎動不安과 半產의 병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胎動不安이 심하지 않고 또한 半產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陰虛의 病因이 개선되지 못하여 虛熱이 잠복해 있는 경우, 출생한 신생아에게 胎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 金匱當歸散을 常服하면 胎毒과 痘疹이 없게 된다고 설명한 것

은 바로 본 처방이 胎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즉, 金匱當歸散의 養血清熱 효능을 통해 半產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養血清熱의 힘을 빌어 胎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본 처방을 常服할 경우 태어난 아이가 聰明하고 지혜롭게 된다고 설명한 것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養血을 통해 陰精이 충만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또한 清熱의 효능을 통해 上部에 虛熱이 제거된 淸한 상태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現代人은 食습관과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陰虛의 素因을 가지기 쉽다<sup>16)</sup>. 그런데 陰虛의 素因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陰虛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여기에 임신 과정 중 잘못된 食습관 및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陰虛의 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虛熱이 조장되어 체내에 잠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胎熱의 발생비율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생아의 胎熱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현재 주목되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근래에 들어 발병율이 높아지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피부염은 아직까지 정확한 病因과 治療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體質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한편으로 신생아 때 胎熱을 앓았던 소아에게서 아토피피부염이 다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胎熱과 아토피피부염이 陰虛로 인한 虛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胎熱이 아토피피부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代人은 陰虛의 素因을 가지기 쉽고, 陰虛의 상태에서 임신을 할 경우 陰虛의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虛熱이 발생할 수 있

14) 陳大舜 外 2인 엮음. 맹용계 外 9人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245.

15) 陳自明 撰.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376. “夫陽施陰化, 故得有胎. 營衛調和, 則經養周足, 故胎得安, 則能成長. 若血氣虛損者, 子臟爲風寒所苦, 則血氣不足, 故不能養胎, 所以數墮胎也. 其妊娠腰疼者, 喜墮胎也.”

16) 方正均. 向後 疾病 樣態의 變化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pp. 68-78.

다. 이와 같이 陰虛로 인해 발생한 虛熱이 임신부 체 내에 잠복될 경우 胎兒에게 영향을 미쳐 신생아의 胎熱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養血清熱하는 효능을 가진 金匱當歸散을 常服할 경우 陰血을 滋養하는 효능을 통해 陰虛의 病因을 제거하고, 黃芩의 작용을 통해 虛熱을 제거함으로써 임신부의 陰虛와 虛熱의 病機를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 胎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東醫寶鑑』을 제외한 다른 서적에서는 본 처방이 胎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록이 없지만, 陰虛의 素因이 많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 처방의 應用을 胎熱의 豫防으로 확대·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 III. 結論

『金匱要略』에서 金匱當歸散은 養血·清熱하는 효능을 통해 胎動不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 본 처방을 半產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胎熱과 痘疹을 豫防하는 처방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金匱當歸散이 胎熱을 豫防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胎動不安과 半產은 모두 임신부의 陰이 虛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虛陽이 躁動하여 발생하는 병증이다. 한편, 胎熱은 母體의 熱이 태아에게 傳해져 발생하는 병증이다. 즉, 胎動不安·半產·胎熱은 모두 陰虛로 인해 발생한 虛熱이 주된 病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匱當歸散의 경우 胎動不安과 半產의 치료 및 예방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胎熱의 예방 약으로도 확대·변용할 수 있는 것이다.

### IV. 參考文獻

<논문>

1. 여성원, 윤주현, 이태호, 이운천, 정현영, 금경수. 金匱要略·婦人妊娠脈證并治第二十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2. 方正均. 向後 疾病 樣態의 變化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3. 牛風云. 談嬰兒胎熱胎毒的成因與證治. 遼寧中醫雜誌. 2004. 31(10).
4. 劉翠玲. 胎毒學說的歷史淵源與現實意義. 中國醫藥學報. 1999. 14(1).

<단행본>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신영일, 안상우, 엄석기, 은석민, 이병욱, 차웅석.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2. 吳謙 等編. 御纂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3.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金匱要略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4.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맹웅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웅석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5. 孫洽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金匱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陳自明 撰.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1994).
9.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